지화로 아미타부처님께 공양 올리다

(사)진관사지화장엄보존회 특별전 개최
전승교육관 준공 기념…11월 30일까지
금강산 장안사 부처님 광배 장엄 지화
진관사 대중 노력으로 복원 작품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화(紙花)는 말 그대로 '종이꽃'이다. 불교에서는 영산재, 수륙재 등의 불단 장엄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지금은 종이를 어디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조선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에 종이는 귀하디귀한 재료였다. 실제 1397년 조선 태조는 수륙재를 주관하는 왕실사찰로 진관사를 지정했고, 왕실에서는 수륙재의 의례문서를 비롯해 다양한 장엄물과 지화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 일체를 시주했다.

그렇게 귀한 한지에 고운 꽃물을 들여 만들어 낸 지화는 당시에는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물이었다. 또한 쉽게 구할 수 없던 생화(生花)를 대체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이자 불교 공예기술의 정점이기도 했다. 이 같은 지화의 정수로 아미타 부처님 세계를 구현한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된다.

(사)진관사지화장엄보존회(이사장 성돈 스님)는 11월 30일까지 서울 진관사 전통문화전승교육관 1층에서 '맑은 수행의 꽃, 선한 인연의 꽃'을 주제로 지화 특별전을 연다.

전통문화전승교육관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연꽃 위에 태어나 아미타부처님을 찬탄하다 △아미타부처님 광명의 빛이 꽃이 되어 극락세계를 장엄하다 △불국토 장엄의 시간과 인연의 3부로 구성됐다. 특히 두 번째 섹션에서는 1924년 발간된 사진첩 〈만이천봉조선금강산〉에서 기록된 금강산 장안사 대웅전 부처님 광배를 지화로 장엄한 모습을 복원해 내 눈길을 끈다. 흑백사진 기록물이지만 진관사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새롭게 구현됐다.

보존회 이사장 성돈 스님은 "종이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참 많은 시간을 들인다. 마치 꽃나무가 한 번 꽃을 피우기 위해 일 년을 보내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수행하며 꽃으로 선한 인연과 공덕을 지은 회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은사이신 회주 계호 스님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시는 주지 법해 스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운력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보존회 이사장인 성돈 스님은 항상 용맹정진하여 불전에 올리는 꽃을 만들어 왔다"라며 "만행화를 피우듯, 오랜 정진 속에 이제 낭중지추(囊中之錐)의 때가 찾아왔다. 스님의 시절인연이 꽃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상찬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름다운 꽃의 대도량에서 우리 자비문중이 언제나 화합하며 진관사 지화장엄의 전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전통에 대한 끊임없는 창조적 재해석을 통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대중 포교와 예술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진관사지화장엄보존회 특별전에 전시된 '아미타부처님 광명의 빛이 꽃이 되어 극락세계를 장엄하다' 작품. 1924년 발간된 사진첩 〈만이천봉조선금강산〉에 기록된 금강산 장안사 대웅전 부처님 광배를 지화로 장엄한 모습(작은 사진)을 구현해 냈다.

해외불교는 지금

태국 방콕서 비구니 대회 "부처님 법으로 단합하자"

9월 27일 출라롱콘 대학서
담마난다 스님 중심돼 열려
긍정적 후속 결과 도출 중

비구니 승단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기존 테라와다 불교계에서 비구니 승단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10월 9일, 해외불교 전문매체인 '라이온즈 로어'는 지난 9월 27일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에서 열린 첫 태국 비구니 대회의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다.

대회에는 구족계를 완전히 수지한 92명의 태국인 비구니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태국 비구니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로 불리는 담마난다 스님의 발원으로 열린 이 대회에는 1~2세대 비구니로 불리는 기성세대의 비구니 스님들과 젊은 세대의 출가자, 그리고 재가 신자들과의 연결과 미래를 위한 지속을 위해 열렸다.

담마난다 스님은 "비구니 승가는 서로 협력하고 상호 간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핵심 키워드는 단합이다. 우리는 단합하고 그 뿌리를 법과 율에 굳건히 뿌리내려야 비구니 승가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마난다 스님은 올해 1월에 이 대회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올해로 세납 81세인 스님은 2세대 태국 비구니로 손꼽힌다. 스님은 어머니이자 1세대 태국인 비구니였던 보라마이 스님의 뜻을 이어 2001년 출가 전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불교학자이자 활동가로서 27년간 탐마삿 대학교에서 불교 여성주의를 가르쳤다.

담마난다 스님은 "태국 불교계를 받치는 의자의 네 다리 중 한쪽 다리, 즉 완전히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가 없어졌다. 네 번째 다리를 되찾아야 한다"며 "비구니 승가는 부처님께서 여성에게 허락하셨으나 태국에서 잃어버린 유산이며 이것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태국 불교계는 지난 1929년 당시 승단 최고 지도자였던 상가라자 스님에 의해 태국의 비구 스님들이 여성출가자를 수계하는 것이 금지된 이래 태국 내에서 비구니 승단이 생기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담마난다 스님은 스리랑카에서 2001년 사미니계를 수지, 2003년 구족계를 수계하면서 최초의 태국 테라와다 비구가 되었다. 이래로 현재 태국 38개 주에는 총 285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정진 중이다.

이번 대회는 비구니 스님들이 대규모로 모인 첫 번째 대회로 태국 불교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비구니 스님들은 종파를 불문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승단 내에 갈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폭력인 대화와 율장에 대해 더욱 많은 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태국 비구니 승가를 연구하는 작가 신디 리시콧은 "대회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치앙라이 주의 비구니 스님들은 경장과 율장을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커리큘럼 개발에 들어갔다. 또한 태국 최대 비구니 사원인 왓 송담마칼리아니 사원에서는 태국 내 비구니 승가의 인원과 사찰을 관리하는 디지털 지도 등을 개발 중"이라며 "대회가 성공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첫 비구니 대회에 모인 태국 비구니 스님들. 사진 출처=라이온즈 로어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⑭ 제법개공(諸法皆空)

있다, 그러나 없다. 없다, 그러나 있다.

諸 法 皆 空

불교의 초기·대승·선종·정토 등 모든 경론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공(空)'이다. 〈중론〉, 〈십이문론〉에서 용수는 모든 현상이 연기(緣起)이며 곧 공임을 논증하였기에 팔종(八宗)의 조사로 불린다.

〈반야심경〉의 주제 또한 '공'이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건넜다(照見五蘊 皆空 度一切苦厄)'는 구절은 공의 실상을 통찰해야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또 '그 무엇을 붙잡으려 하지 않게 때문에 모든 불안이 자리할 수 없다(以無所得故 無有恐怖)'는 말씀은, 집착이 사라질 때 불안도 머물지 않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공'에 대한 성찰과 체득은 자유와 평온에 이르는 길이다.

공이란 모든 현상, 즉 명칭과 형태, 작용을 지닌 제법(諸法)이 본래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분노와 증오는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곧 '공'이다. 그렇다면 왜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양한 조건과 의도가 결합해 생겨난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연기이다. 따라서 공과 연기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는 연기의 법칙을 드러내는 두 표현이다.

그러나 공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는 존재가 전혀 없다고 여기거나,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되어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단절로 본다. 이는 허무주의나 체념에 빠지는 길이다. 〈중론〉은 "공의 이치가 있기에 모든 존재가 성립한다. 만약 공의 이치가 없다면 어떤 존재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한다.

또 다른 이들은 공을 현실 밖의 초월적 이데아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전은 "위대한 성인은 갖가지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공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만약 공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는다면 어떤 부처도 그를 교화하지 못한다"라고 경계한다.

결국 '공'이란 본래부터 '있음'과 '없음'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의도가 개입하면 현상은 생겨나고, 개입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공은 사견과 편견, 집착과 욕탐을 없애는 특효약이다.

생각해 보라. 지금의 번뇌는 본래부터 존재했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있음'과 '없음'이 고정되지 않기에 번뇌와 자애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불교미술의 자존심! 聖鐘社 명품 범종 -성종사의 아름다운 표면처리기술-


브론즈착색(에밀레종)


유광 처리(해인사종)


부분 개금(운수사종)


부분 칠보(4보살종)/신제품


칠보 개금(칠보종)

범종명가 성종사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습지길 35 / Tel : 043-536-2581 / Fax : 043-536-2582 / 홈피 : www.sungjongsa.co.kr / e-mail : won6141@hanmail.net / 대표 : 범산 원광식